

2020 TV CHOSUN

국제 화상 컨퍼런스

AI·e 러닝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다!



PROGRAM

구분	시간	프로그램 내용
세션1	7:30~9:00	<p>AI교육, 원격교육 시대 <강연> 웨인 홈즈 / 英 Nesta 교육부문 수석 연구원</p> <p><패널> 김부열 / 서울대 교수 조충열 / 서울폴리텍평생교육원 대표이사 백혜리 / 씨드콧 커뮤니케이션 이사</p>
기조연설	9:10~9:30	반기문 / 前 UN사무총장
세션2	9:40~11:10	<p>에듀테크, 교육이 바뀐다 <강연> 데일 존슨 / 美 에리조나주립대 디지털 이노베이션 총괄이사 마우로 카발로 / 우루과이디지털러닝 국가기관Ceibal 매니저</p> <p><패널> 정태용 / 연세대 교수 조용상 / 아이스크림에듀 대표 조현구 / 클래스팅 대표</p>
세션3	11:20~12:50	<p>게임 체인저, 파괴적 혁신 <강연> 마이클 혼 / 美 교육벤처스튜디오 Entangled Group 전략책임자 캣 플린 / 美 뉴햄프셔대 교육 과학 이노베이션 부센터장</p> <p><패널> 장순흥 / 한동대 총장 장제국 / 동서대 총장</p>

TV CHOSUN 국제포럼은 2017년도 부터 매년 꾸준히 시대의 화두인 주제를 바탕으로,
각 계층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글로벌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20 TV CHOSUN 국제포럼은 코로나19로 인한 화상 컨퍼런스로 진행되었습니다.

SESSION 1

연설자 및 패널 소개

tv조선 국제포럼



웨인 홈즈

- Nesta 교육부문 수석 연구원
- 영국 가상교육기관의 AI교육 담당
- AI활용교육 및 연구, 강연 전문가



김부열 교수

- 서울대학교 교수
- 빈곤국가 개발경제, 지속가능개발 연구
-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교육 이점강의



조충열 대표

- 서울폴리텍평생교육원 대표
- 학점은행제 위상 강화
- 외국학교 편입학 기회 증진



백해리 이사

- 씨드컴 커뮤니케이션 이사
- 교육혁신가들의 지역사회와학교연결사업, 교육프로그램 개발컨설팅 사업 총괄

강연 및 토론

세션 1에서는, AI·원격교육의 근본적인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많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AI교육의 근본적인 목표는 학습자가 개별시공간에 따른 맞춤형 학습서비스를 제공받는 것 인데요,

따라서 개별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AI교육, 즉 개인별 맞춤교육(Mass personalization)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웨인홈즈는 강연 중 이에대한 예시로 "공공버스 말고 이제는 택시를 타야합니다"라고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The implications: "promise" of personalised learning)

SESSION 1

AI교육은 파괴적인 혁신, 에듀테크의 산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에듀테크**란, 교육(Educatio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교육서비스업이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등의
ICT기술과 융합해 기존과 다른 학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파괴적 혁신은 경쟁분야에 있어서 갈등을 초래할텐데...
하지만 혁신에 뒤처진다면 앞으로 생존하기 어렵겠지?

따라서 위기를 기회삼아 파괴적 혁신을 극복하고,
합리적인 교육구매서비스의 선택이 늘어나야지!



AIED가 대세라는데, 도대체 그게 뭔가요?

Artificial intelligence in Education Society의 약자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시가반교육 입니다.
AIED에 참여하는 기업은 대표적으로 Knewton, Squirrel AI등이 있으며,
2024년까지 AIED시장은 대략 60억 달러에 가까운 가치를 가질것으로 예상됩니다!

AIED는 크게 '시교육', 'AI를 이용한 교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AIED와 관련된 연구는 끊임없이 이어지지만, 그중 student-facing AI에 관한 연구가주를 이룬다고 합니다.

웨인홍씨는 이번강연에서 'AI를 이용한 교육'을 주로 다뤘으며, 강연에 의하면
미래의 student-facing AIED는 집단적 배움을 실현시키며, 학습도우미 역할, 모니터링으로 인한 토론활성화가 있고,
미래의 teacher-facing Aied 로는 학생의 토론 모니터링, 연구분야에서의 도구, 강의 보조도구로 쓰일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과목의 특성상 철학적이거나 인문학적인 과목에 있어서는
인간 고유영역인 'Humanity'를 어떻게 AI교육과 접목시킬 것인지
많은 연구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중요해요!



SESSION 2

연설자 및 패널 소개

tv조선 국제포럼



데일 존슨

- 에리조나주립대
- 디지털이노베이션 총괄이사
- EdPlus 프로젝트로 대학교육에 새로운 지평을 제시

정태용 교수

- 연세대학교 교수
- 에너지 및 기후전문가
- 지속가능발전, 에너지, 북한개발 연구진행



조용상 대표

- 아이스크림에듀 대표이사
- 교육기술 정보시스템분야 전문가
- 초중등 맞춤형학습을 위한 콘텐츠개발중

조현구 대표

- 교육 플랫폼 '클래스팅' 대표
- 초등학교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다
- 아이들이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위해 클래스팅 개발



강연 및 토론

세션1 에서 에듀테크의 중요성을 위주로 토론했다면,

세션2 에서는 에듀테크가 교육의 혁신을 일으켰으며,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에듀테크는 단순히 교육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이러닝(e-learning)을 넘어 개개인의 수준에 따른 맞춤 교육까지 가능해 새로운 학습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존교육현장을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2020 tv조선 국제화상포럼 - Q&A 시간의 모습입니다.

SESSION 2



이미 의료계의 medical education이 진행되고 있고,
law school, business school에서도
에듀테크를 기반한 원격교육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와! 그럼 원격교육의 대상자 스펙트럼을
더 넓게 펼칠 필요가 있겠군요!

“
글로벌시장에서 에듀테크가 발전하기 위해선, 지식이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social network를 잘 구축해야 합니다.
에듀테크의 선례를 만들어 대중화시킨다면 기존의 문제가 되었던 교육의 불평등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어요!
”



EdTech의 성장으로 인한 통찰력이 중요합니다.

1. 기술은 학습자의 기대를 변화시킵니다.
2. 학습자들은 각자 독특한 교육적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3. 학습자들은 문제를 직접 해결함으로써 지식을 가장 잘 습득합니다.
4. 강사의 역할은 지도자로 변화됩니다.

에듀테크에서는 균형이 중요한데,
이 균형은 Hard&Soft Skills을 말해요.
Hard Skills에서는 프로그래밍과 숙련이 필요하며,
Soft Skills에서는 소통, 팀워크가 필요합니다.
둘의 적절한 균형을 이루기 위해
에듀테크의 학습체제를 유연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에듀테크는 모든 국가의 현재 교육 패러다임과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도구입니다.
현재의 교육시스템은 공급형 시스템인데, 에듀테크는 이를 완화시키며
학생들의 개별 교육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SESSION 3

연설자 및 패널 소개

tv조선 국제포럼



- 마이클 혼
- 교육벤처스튜디오,
 - Entangled Group의 전략책임자
 - 교육생태계의 전략자문회사, Entangled Solutions의 senior

- 캐트 플린
- 뉴햄프셔대 교육과학
 - 이노베이션 부센터장
 - SNHU에서 온라인 강좌 디자인
 - 교육시스템 설계자교육



- 장순홍 총장
- 한동대학교 총장
 - 한국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위원장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통령자문위원

- 장제국 총장
- 동서대학교 총장
 - 교육부 한중일 고등교육교류
 - 전문가위원회 위원
 - 부산광역시 정책고문



강연 및 토론

세션 3에서는, AI 및 원격교육이 새로운 'game changer'로 나타날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때 game changer이란, 판을 뒤흔들어 시자으이 흐름을 통째로 바꾸거나 어떤일이나 결과 혹은 흐름 및 판도를 뒤집어 놓을만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건, 사람, 서비스등을 말합니다.

예를들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저커버그의 페이스북이 있습니다.

SESSION 3

앞으로의 시대는 High-Tech, High-Touch 인재를 선호하게 될 것입니다.



High-Tech,
High-Touch 인재란?
-주어진 문제상황을 인식하고,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인재를 말합니다.

"배움의 개념을 평생학습으로 확대시키고,
AI, 원격교육을 통해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지식의 전달자로서 이 시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리더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이클 혼

"파괴적 혁신을 통해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으며, 새로운 가치를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기술 지원자가 있고, 기술혁신을 지속가능하게 해주는 비즈니스모델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교육혁신을 통해 대학은 학생의 미래를 위해 집중해야 합니다."

캣 플린

"우리는 혁신을 관념, 발명 그리고 사업전략을 통해 새로운 규칙을 달성하기 위한 규율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혁신은 미래를 창조하는 기반이 됩니다."

"최첨단 기술을 사용해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강연 중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발발이 역설적이게도 교육 혁신의 기회...?

첫번째,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간의 끝없는 욕구 추구의 대한 명백한 경고의 일종이다.

최첨단 지식 및 기술에 지나치게 집중한 결과, 지금은 창의적 인성에 집중할 때이다.

두번째, 코로나바이러스는 팬데믹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현재 교수진들은 온라인강의를 진행하는데 기술적한계를 체감하며, '교육붕괴'를 막을 수 있는 시러닝을 활성화해야한다.

세번째,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 4차산업혁명에 적합한 대학교육을 만들어야 한다.

교육제도의 한계를 파악하고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 코로나19로 인해 국내교육기관들은 온라인 원격강의를 실시하고 있는 현재,
한국은 코로나 19에 따른 새로운 원격시스템의 도입과 교육안정화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tv 조선 국제포럼 소개영상 | ▾

✓ 초청연사 프로필 | ▾

✓ 지난 강연 영상 보기 | ▾

✓ 현장 사진 보기 | ▾

⋮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http://www.tvchosunforum.com/index.php>